

김통정은 영웅이자 가해자 '도민 이중적 시선'

[삼별초 역사 거꾸로 보기]

데스크승인 2014.02.20 김현중 기자 | tazan@jejunews.com



제주에 들어와 관군과 전투를 벌이는 삼별초를 제주도민들은 해방군으로 인식하고 반겼다. 몽골에 반대하는 반(反) 외세, 몽골과 강화한 고려 정부에 반기를 든 노선에 대한 지지였다.

그러나 삼별초가 본격적인 항쟁을 전개하면서 도민들은 서서히 등을 돌렸다. 삼별초가 방어시설 구축과 선박 건조, 군량 확보과정에서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항파두리성을 쌓을 때 도민들이 먹을 게 없어 인분까지 먹었다"는 말이 지금까지 도민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삼별초에 대한 도민사회의 이중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제주에 전하는 김통정 장군 설화에 서도 상반된 시선이 읽힌다.

김통정은 지령이 부친과 과부 사이에서 날개 달린 장수로 태어나 성장과정에서 도술을 부렸다. 김통정은 항파두리에 성을 쌓고 해상왕국을 건설했지만 '아기업개'의 배신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

는다.

이 설화의 전반부가 김통정을 영웅시켰다면 후반부는 김통정이 도민들에게 버림받고 생을 마감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안덕면 덕수리의 광정당 본풀이는 김통정이 당신(堂神)의 공격으로 죽었다고 전하는 반면 애월읍 고내리의 당(堂)은 김통정을 신(神)으로 모시는 점도 이중적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김동전 제주대 교수(사학과)는 "삼별초의 항쟁이 반외세란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도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이중적 시선이 존재한다"며 "향파두리성의 성역화도 반외세 항쟁이란 점과 함께 제주도민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